

[대한민국 꿈나무들에게 건강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어렸을 때 어린이 예술회관, 미술관과 박물관은 저의 놀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들은 가끔 다른 나라로, 또 다른 시대로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공간 속의 다양한 모험과 정보들은 결국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동경으로 이어졌고,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무한한 공간의 매력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예술 공간이라면 그 지역이 어디든 방방곡곡 전국을 여행 삼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때론 사색하고 느낀 바를 남기는 것을 좋아해 지금도 여전히 사진을 찍고 기록하는 중입니다.

학부 시절 동안 낯선 타지에서 지낸 저에게 건축과 예술은 삶의 위로와 기회의 존재입니다. 공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 더 빠르고 명료하게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외에 여러 문화생활을 하면서 문화적 소양을 기르던 것이 지금은 그러한 문화공간을 향유하는 취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서 열리는 교육 세미나 또는 포럼을 참여하곤 했는데, 탁상공론보다는 직접 세상에 나와 실무경험을 쌓고 누군가에게 문화적 만족을 선사해주는 공간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니 자연스럽게 문화, 예술, 공간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미래 건축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강원도에 자리한 강원문화재단의 '강원국제예술제'는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승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2013년 제1회 평창비엔날레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4번의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였고, 전 세계 시각예술의 현주소를 담론하고 있습니다. 기존 2년 한 번 열리는 비엔날레에서 보다 폭넓은 지역 연구와 지역민 참여를 겨냥하여 3년 주기 트리엔날레로 그 기틀을 바꾸며, 국내 최초 3년 주기 순회형 국제 예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에 군 유희지, 폐교, 빈집 등 공동화 우려 지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하고 참여적, 지속적, 공공 예술적 시각예술축제를 추진하여, 강원도 전역을 예술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주력으로 강원도 전역의 예술 공원과 관광화를 몸소 보여주고 실행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랜드마크 조성 및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강원국제예술제는 매년 행사를 통하여 문화적 지역재생을 이룩하고, 주민 협업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함이, 지역 주민이 공동체로서 하나 되고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홍천군 탄약정비공장, 홍천미술관 강원 작가 展을 비롯해 오는 2020년 10월 22일~11월 8일 약 3주 동안 홍천의 '와동분교'와 '탄약정비공장' 등 어린이 축제를 개최했는데 와동분교는 폐교였던 학교를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통해 아트스쿨을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강원국제예술제의 유희지 활용은 예술작품이 놀이터가 되고 공부만 하던 교실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아이들이 작가들의 세계와 작품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주역인 꿈나무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와 건축계획을 담을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주인이 없는 폐공장이나 부지, 심지어 폐교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매우 아깝기도

하고 아쉬움으로 남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국 각지에서도 숨은 공간, 빈집, 노후 건축물 등이 많아 어떻게 하면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국제예술제처럼 지역 곳곳에 예술제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홍보한다면 그 지역주민의 유희지에 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 제도적 측면을 고려해 연령대별 의견을 수렴하여 잠재력 있는 유희지를 선정해 지역특화 공간 및 문화연계의 건축정책을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인구유입과 여건과 환경의 고려하여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생활 SOC 등을 구축한다면 그 지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건축시장과 인력 고용 또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 건축 성장과 차별화된 건축도시여건을 구현하기 위해 아직은 같이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많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 예술, 공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시민과 앞으로의 후대를 이어나갈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건축공간이 위로와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계속 양산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미래 세대 꿈나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시도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때로는 함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공간으로 계획되길 바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대한민국 건축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윗글에서 보이듯이, 공간, 예술, 건축 등의 분야는 정말 평소에 꾸준히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안 드린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선진건축 도시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은 실무경험이나 능력보다 열정과 다양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으로서 그리고 관련 직무자로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열의와 자신감이 대한민국 건축 정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